

혁신 중개자 (Innomediaries)

혁신 중개자란 혁신 아이디어가 필요한 탐색자(Seeker)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Solver)를 하나의 접점에서 만나게 해주는 중개 기업을 의미한다.

손민선 선임연구원 msson@lgeri.com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거나, 실행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있을까? 아이디어의 부족, 실행 자원의 부족, 실패에 대한 두려움... 혁신을 원하는 많은 기업들이 결국 실패에 이르는 이유이다. 그러나 이제는 혼자서만 고민하지 말자. 새로운 혁신 아이디어와 실행 파트너를 구해줄 혁신중개자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에 존재하는 글로벌 R&D 센터

2001년 창립된 이노센티브(Innocentive, Inc)는 세계의 과학자들과 기업이 혁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실행하는 온라인 포럼이다. 기업 내 중요한 개발 과제가 있는 기업이 익명으로 이노센티브에 아이디어를 게시하면 세계 각 국에 퍼진 과학자들이 각자 연구에 착수한 후 문제를 해결한다. 이들의 연구 결과를 다시 이노센티브에 게시하면 기업은 그 중 가장 퀄리티가 높은 과제를 선정하고 용역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혁신 아이디어가 필요한 탐색자(Seeker)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Solver)를 하나의 접점에서 만나게 해주는 활동을 혁신 중개(Innomediation)라 한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하는 이들은 혁신 중개자(Innomediaries)라 불린다.

이노센티브의 조사에 따르면 제약 분야의 연구 자본은 80% 이상이 미국에 집중되어 있으나, 실제 미국 현지에서 R&D 활동이 이루어지는 비중은 30%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 외에는 인도, 중국, 러시아 등에 세계 각국에 산재한 과학자들에 의해 R&D가 수행되는 것이다. 혁신중개자들은 BASF, Dow Chemical, P&G와 같은 기업들과 해외 연구 인력들을 중개해 준다. 다시 말하면, 혁신중개자란 누구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R&D 센터인 셈이다.

효율성과 효과성을 모두 제고 가능

최근 글로벌 기업들은 열린 혁신을 위한 파트너 찾기에 많

은 비용을 할애하고 있다. 벤처 캐피탈에 지분을 투자하거나 외부 기업과의 제휴를 맺고 산학 네트워크를 확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혁신 중개자를 이용하는 경우 파트너 찾기에 들어가는 별도의 부담 없이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하나의 탐색자에 여러 명의 문제 해결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경쟁 메커니즘이 형성되기 때문에 결과의 만족성도 높다.

실패율이 높은 연구 개발 프로젝트의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개별 프로젝트의 성공 확률은 낮지만, 단 한 개의 연구 개발 건만으로도 업계의 판도가 바뀔 수 있는 제약 산업에서 혁신 중개자를 통한 열린 혁신이 가장 활발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형 혁신 중개자 육성 필요

훌륭한 혁신 중개자의 존재는 소규모 연구인력이나 벤처 기업의 활동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실제로 IBM, 인텔과 같은 기업들은 인도 소재의 R&D 아웃소싱 기업인 와이프로(Wipro)사의 인도 연구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인도가 IT 아웃소싱의 메카로 성장하기까지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혁신 중개자인 와이프로의 활약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현재 한국 기업의 열린 혁신은 아직 도입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주간경제 896호, 오픈 이노베이션 성공 가이드라인 참조), 이것은 국내 연구 개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에도 자원 낭비일 뿐 아니라 창의적이고 다양한 연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국내 벤처 및 소규모 연구 인력들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혁신 중개자를 통해 국내 벤처 기업과 글로벌 기업을 연계한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벤처 기업들에게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열린 혁신의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는 지금, 뛰어난 네트워크와 플랫폼 기술력을 가진 혁신 중개자에 대한 정책적 육성을 고려해 볼 시점이다. www.lgeri.com